



송혜숙 안나
前 서울예술대학 교수

I 방해받을 수 있음에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마르 2,3-4)

성경공부를 할 때 내게 큰 울림을 주었던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네 친구가 아픈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 친구들의 사랑이 내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 우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슐레스케가 쓴 「가문비나무의 노래」에서 ‘예수가 방해받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슐레스케는 그 일로 “지붕은 파손되었고 예수는 설교를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적, 신체적 장애는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본 이 일화에서 나는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도록, 그 순간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방해하도록 놔두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내 생각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 줍니다. 나를 방해받도록 놔둘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지닐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자클린 뒤 프레라는 영국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리던 그녀의 엘가의 첼로 협주곡 연주는 압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28세이던 해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연주

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그녀의 연주 인생에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방해꾼을 그녀 자신을 가르치는 일로 받아냈습니다. 42세로 죽기 전까지, 그녀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녀가 함께 나누겠다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증상이 잠시 그녀를 방해하기는 했지만 그 방해를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유사한 모습을 매일 산책하는 길옆 계곡에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배웁니다. 산책을 하려면 물길 가는 길목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나무토막들인데 근처에 오래된 밤나무가 한 그루 있어 부러진 가지들이 물길을 막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물길은 잠시 오던 길에서 멈추는 듯하다가 다시 제 길을 찾아 흐릅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 흐름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랑 또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모든 것을 놓고 아이를 맞이하는 엄마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랑의 전환점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는 방해받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열어 둡니다. 방해가 다른 물결을 타고 흘러가도록 놔두는 그런 여유 말입니다. 올해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덕목입니다.



삼종기도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삼종기도의 기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11세기 이슬람 세력이 팔레스티나 성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을 파병하면서 승리를 위해 하루에 세 번 성당의 종을 치면서 기도를 바치라고 한 것을 시초로 봅니다. 그 이후 1318년 교황 요한 22세가 저녁에 종이 울리면 평화를 위해 성모송을 세 번 바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아침에도 하게 되고 15세기에 와서는 낮에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 시기에는 부활삼종기도를 바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